

01 교회소식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고, 고압 감전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청년이 건강을 회복해 영광 돌린 케냐와 인도 소식.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GCN방송, kt 올레tv 882채널에 HD 방송

kt 올레tv 882채널에서 24시간 HD로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등 GCN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04 간증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사업터의 축복, 고추 농사 대풍작, 대상포진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등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55호 2021년 11월 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걷지 못하던 딸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셨어요!”

월터 나보케 성도 (30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웅가타 롱가이 지성전)

저는 아들과 큰딸, 그리고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 레베카는 생후 9개월 만에 걷기 시작했지만 좌보카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월터 나보케 성도(맨 오른쪽)와 자녀들

처음에는 걷기를 더디 하나보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걷기는커녕 똑바로 설 수조차 없었지요. 저는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좌보카를 데리고 마타시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 이 상태로 놔두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니 병원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다였지요. 마사지 받을 때 고통받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효과 없이 시간은 흐르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저는 주님만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화요일마다 금식을 하였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5일(금), 여느 때와 같이 ‘Family TV’에서 방영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뒤 혼자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날도 당회장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뒤 좌보카의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 기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아들과 큰딸이 좌보카가 혼자 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자고 있는 좌보카를 깨워 걷게 하였습니다. 정말 아이는 기적적으로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걸어 다녔지요. 저는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000V의 고압 감전사고 후유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카말 딘 형제 (25세, 인도 하리아나 주)

지난 8월 5일, 저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11,000V의 고압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고 손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요.

12시간 만에 의식이 깨어났지만 팔과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움직일 수 없었으며, 말도 어눌하고 입도 잘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틀 만에 퇴원해야만 했지요. 이후에는 진통제 주사에만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7일,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만



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 다니엘철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랜선으로 참석해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원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몸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2)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한복음 6:53~55)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과 함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물을 섭취해야 위를 비롯한 소화관의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 곧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을 설명한 데 이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기 위해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병행돼야

인자의 살, 곧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으려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런 행함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양식 삼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고 들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 영적인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함으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니 다음에는 더 큰 믿음으로 심고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행함을 보일 때 마음에 사랑이 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양식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없고 마음이 변화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작은 믿음조차 빼앗겨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2. 하나님과 사귀기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소화하여 진리의 마음이 되면 당연히 비진리인 어둠에서 떠나 진리인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 주시지요.

설령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믿어 진정 마음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귀기 있으며, 만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기 있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기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육적 사귀기 아니고, 영적 사귀기, 진리의 사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므로 우리도 빛이 되어야 영적 사귀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밝히 깨우쳐 주시니 말씀을 듣고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영적으로 진리를 의미하며 진리는 어둠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과 같이 선과의, 사랑에 관한 모든 진리 말씀이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둠'이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므로 그 끝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가 다 어둠이지요. 곧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등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것이 다 어둠에 해당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지키라' 하신 것을 행치 않으며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둠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결코 빛과 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빛을 싫어하며 멀리합니다. 반면에 빛이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럴 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범사에 행통할 수 있습니다.

3. 행함 있는 믿음이 참믿음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이를 행치 않으면 이는 머리로 아는 믿음일 뿐 참믿음이 아니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약 2:14).

요한일서 1장 8-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니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님, 제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이는 자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히 돌아키는 것이며, 이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버려 나가며 빛 가운데 행해 나갈 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며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고,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들어서 알기에 교회에 다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믿지 못하므로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지식으로 아는 믿음에 불과하므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는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하셨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해 순종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연단 생활 끝에 광야에서 죽

고 말지요. 이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보고 체험한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다 해서 의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 겉은 마음이 진리의 하얀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행함은 어떻게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모두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 그 짝을 맞추어야 온전한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록된 로마서 10장 9-10절을 보더라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진정 마음으로 믿는 자라야 행함이 따르므로 입술의 고백이 참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인이 되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9-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나타날 표상의 그림자로서 행위적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적 구원이란 내게 살인할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등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힘만으로 마음의 죄를 온전히 벗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죄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오신 뒤에는 내 마음 안에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있음을 알려 주실 뿐 아니라 비진리를 벗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임을 깨달아 죄를 벗어 버리며 성결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행함 있는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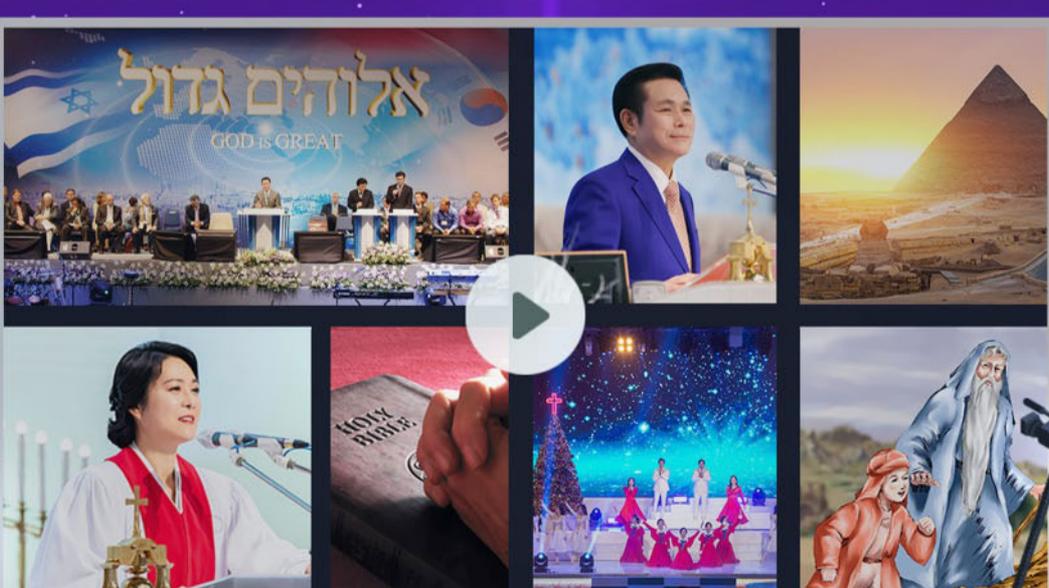


24시간 GCN HD 방송 시작!

‘이제 클릭 한번으로 HD 생방송을 시청하세요’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882채널에서 ‘생방송 시청하기’ 확인 버튼을 누른 후 SD 생방송으로 24시간 방송 시청

882채널에서 바로 HD로 24시간 방송 시청



“기도받으니 고추나무가 2미터 이상 크고 대풍작을 이뤘습니다”

강향숙 집사 (62세, 2대대 14교구)



저희는 만민을 만난 뒤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직업군인인 큰아들은 하사에서 중사로 승진했고, 7급 공무원인 작은아들은 시립국악원에 근무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건축업을 하는 남편(고희철 집사)은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면서 일거리가 넘칩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추 농사가 대풍작을 이뤘지요. 사실 저희는 3년 전에 사 놓은 논이 있었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땅에 속한 논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 차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다른 주인의 땅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주인이 지나가도록 허락을 안 해 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농사를 못 짓더라도 그분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의 도움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 하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져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의 공사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동안 남편이 수급하지 못해 포기하고 있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해 두시고 이때 맞춰 기다리셨다는 뜻이 응답해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공사를 마친 논에 심은 벼농사는 잘되었고, 특히 고추 농사는 대풍작을 이뤘습니다.

남편이 고량을 다니면서 매일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 소리를 들려준 덕분이었지요. 기도 소리를 들려줄 때와 안 들려줄 때와의 차이를 느낀 남편은 신이 나서 고

량마다 다니면서 당회장님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추나무가 2미터 이상 자라고 풍성하게 고추가 열려서 가지가 무거운 나머지 고개를 푹 숙일 정도였지요. 고추밭이 아니라 고추 숲에 있는 듯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고추 농사를 잘 지었느냐고 하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당회장님의 기도이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습니다”

전명순 권사 (53세, 2대대 8교구)



지난 9월 7일, 왼쪽 어깨가 벌레 물린 듯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렸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가려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가 왼쪽 겨드랑이 쪽과 귀 뒤쪽으로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대상포진이었지요.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였기에 아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9월 13일에 ‘랜선 은사 집회’가 있었기에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자 교구장님과 지역장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지요. 그리고 은사 집회를 앞두고 열린 ‘성령 충만 다니엘철야’에 GCN방송으로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집회 당일, GCN방송을 통해 ‘랜선 은사 집회’에 참석하는 순간부터 제 왼쪽 귀 뒤쪽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던 증상이 멈췄고, 이수진 목사님께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는 몸에서 땀이 쭉 빠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왼쪽 어깨와 겨드랑이 쪽에 희미하게 통증이 남았는데, 이후 회개할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지정옥 집사 (64세, 1대대 1교구)



2020년 12월 21일, 퇴근하던 길에 타고 있던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아도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했지요. 그로 인해 밤에 잠을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고, 왼팔은 아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능의 당회장님, 권능의 제단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해결 못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되었지요.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은사 집회가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금식을 하며 GCN방송을 통해 ‘성령 충만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은사 집회 시작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며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두통이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요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1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6, 2층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